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21호 【루게 제24534호】주제 103(2014)년 5월 1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설

전체 근로자들이여,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폭풍쳐나아가자

전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명예인 5.1절을 맞고있는 뜻깊은 시기에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또 하나의 전설같은 사상이 전해져 만사합의 심장을 격동시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문명국의 체제에 맞게 새로 일떠선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합숙을 찾으면서 먼지만 날리던 꽃이 천지개벽되었다고, 18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이 일떠섰다고, 최고사령관이 공장노동자들과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당당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부강조국건설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해온 공지높은 력사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 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근로하는 인민에 대한 주체적인 편견을 세우시고 광범한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불러 일으켜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끄는 창조해나가는 부강조국건설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끄시는 새로운 시대는 선군조선의 새로운 진군속도를 창조해나가는 거창한 변혁과 비약의 시대,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격조적인 시대이다.

우리 조국이 정치사상 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은 최대의 중대사이며 그 직접적담당자가 다름 아닌 우리 근로자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대에 부강조국건설의 터전을 닦고 강성국가건설의 든든한 도약대를 마련하였다면 오늘의 시대에는 대원수님들의 한평생의 노고를 받들어 하루빨리 이 땅위에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워야 할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다.

위대한 장군님들이 대를 이어 계승한 조선로동당이 받들어온 시대의 전통, 영웅이라는 값높은 칭호에도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은정이 어려있다.

모든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과 사상과 뜻, 숨결을 같이해나가는 열렬의 동지, 진정한 전우가 되어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어나가야 한다.

자기 수명,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우리 근로자들의 혁명적용모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우리의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은 당과 수명만을 끝내 믿고 혁명의 년대기마다 고결한 총정의 력사를 수놓아왔다.

모든 근로자들은 사랑하는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세계에 빛날 일떠세우는 애국심을 지니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은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힘있는 추동력이다.

모든 근로자들은 새 세계 산업혁명의 불길드높이 지식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해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마크에 마치고 낫과 낫이 새겨진 때로부터 70성상의 장구한 세월이 흘러갔다.

우리의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이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나라의 주인, 혁명과 건설의 직접적 담당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부강조국건설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해온 공지높은 력사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 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근로하는 인민에 대한 주체적인 편견을 세우시고 광범한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불러 일으켜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끄는 창조해나가는 부강조국건설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모든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과 사상과 뜻, 숨결을 같이해나가는 열렬의 동지, 진정한 전우가 되어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어나가야 한다.

자기 수명,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우리 근로자들의 혁명적용모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우리의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은 당과 수명만을 끝내 믿고 혁명의 년대기마다 고결한 총정의 력사를 수놓아왔다.

모든 근로자들은 사랑하는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세계에 빛날 일떠세우는 애국심을 지니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은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힘있는 추동력이다.

모든 근로자들은 새 세계 산업혁명의 불길드높이 지식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해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마크에 마치고 낫과 낫이 새겨진 때로부터 70성상의 장구한 세월이 흘러갔다.

우리의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이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나라의 주인, 혁명과 건설의 직접적 담당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부강조국건설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해온 공지높은 력사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 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근로하는 인민에 대한 주체적인 편견을 세우시고 광범한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불러 일으켜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끄는 창조해나가는 부강조국건설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주재 대통령전권 대표와 세계활쏘기련맹 위원장이 선물을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전권대표가 4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주재 대통령전권대표가 선물을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세계활쏘기련맹 위원장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우그르 에르네니 위원장이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께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19호
주제103(2014)년 4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부총리를 임명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김덕홍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부총리로 임명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별 양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의 결정체 조선인민군 1월 8일수산사업소 조업식 진행

【평양 4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아름다운 동해포구에 조선인민군 1월 8일수산사업소가 훌륭히 건설되어 조업하였다.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 양로원들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게 될 1월 8일수산사업소가 조업함으로써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를 더 많이 먹이시려고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와 인민군인민들의 결사투쟁의 투쟁에 의하여 새로 일떠선 1월 8일수산사업소에는 최신식고기배들과 평동창고, 방파제, 잔교, 하륙장, 상가대 등 현대적인 항만시설들은 물론 합숙과 휴게실, 살림집을 비롯하여 수산물생산과 어로공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져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피뎠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군인건설자들은 대소환의 강추위와 폭설속에서 세한 파도와 싸우며 비행장활주로와 같이 날바다로 뻗어나간 방파제, 수백m의 부두들을 비롯한 바다구조물공사를 불과 수십일동안에 끝내내 이어 모든 대상들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훌륭히 건설하였다.

회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날려 몇 년이 걸려야 한다는 방대한 공사를 2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끝낸것은 단숨에의 기성과 불가능을 모르는 불굴의 투쟁정신, 영웅적투쟁기풍의 체현자인 우리 군대만이 창조할수 있는 또 하나의 기적이며 조선속도창조의 본보기이다.

조선인민군 1월 8일수산사업소 조업식이 4월 30일에 진행되었다.

조업식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조업식장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적으로 사수하자!》,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인민들에게 보내 주자!》, 《대담하고 적극적인 어로전을 벌려 물고기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인민무력부장 장정남동지가 조업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수산사업소가 번듯하게 일떠섬으로써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수산기지가 마련되었다고 말하였다.

조업식은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들고》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의 결정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지난 1월 6일 뜻깊은 올해의 첫 현지지도로 이곳 수산물생산시설을 찾으시어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 양로원들에 1년 365일 하루도 변하지 말고 물고기를 공급해주는 사업을 인민군대가 맡아

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선군혁명명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두차례나 건설현장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이곳 수산사업소를 우리 나라 수산사업소들의 본보기로 훌륭히 일떠세우도록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세계정치사에는 인덕으로 이름을 남긴 위인들이 적지 않지만 부모없는 아이들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로인까지 한몸에 안고서 그토록 세심히 보살피주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와 같은 인민의 어머니는 없었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군인건설자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하루빨리 빛나게 실현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천년척, 만년보종의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생산건물들은 물론 어로공들의 생활시설들과 주택지구를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훌륭히 건설하였다고 말하였다.

총린 혁명전사들이 세운 위훈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건설장을 찾으시어 때마다 군인건설자들이 짧은 기간에 방대한 공사파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한것은 놀라운 기적이며 이것이야말로 조선속도라고 거듭 높이 평가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애민현신의 정력적인 령도와 당의 부름에 무한히 충실한 인민군장병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1월 8일수산사업소는 수산물생산과 저장, 어로공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높은 수준에서 갖추어진 전국의 표본수산사업소로, 불수록 회한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솟아날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의 결정체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남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아들여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연설자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1월8일 수산사업소의 일군들,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순결한 망심과 의리로 충직하게 받들어모시며 천결만결의 성세, 방패가 되어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결사보위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월8일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제시하신 물고기잡이 목표를 기어이 수행하는 바다의 어로결사대로 준비해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연간출어일수를 결정적으로 높이고 출어 회당 어획고를 높이며 선진적인 어로방법으로 해마다 물고기대풍을 안아오으로써 조국의 동해로구에 선군14경을 자랑높이 펼쳐놓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기업관리, 경영관리를 사회주의본태에

맞게 끈지게 짜고들어 적은 연유로 많은 물고기를 잡음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는데서 1월8일수산사업소가 온 나라의 선구자가 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최신식 고기배들과 물고기저장 및 가공설비들에 완전히 정통하고 눈동자와 같이 애호관리

하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수산사업소와 어촌단 품마음을 선군문화의 본보기로 더 잘 꾸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후대 사랑, 인민 사랑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명한 명도가 있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인민군장병들과 어로공들이 있기에 온 나라

에는 사회주의바다항기가 가득 차넘치고 방방곡곡에서는 사회주의웃음소리, 로동당 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질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 주악으로 조업식은 끝났다.
 조업식에 이어 참가자들은 조선인민군 1월8일 수산사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의 결정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주제 대통령전권대표일행을 만났다

【평양 4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4월 3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 온 유리 드루트네브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주제 대통령전권대표와 일행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리룡남무역상, 궁석웅 외무성 부상, 판계부 문 일군들과 알렉산드르 짜모닌 주조 로씨야연방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이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부수상 겸 원동련방주제 대통령전권대표는 존경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번영이 있기를 바란다 고 하면서 그는 앞으로도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강화 발전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판계부 문 일군들과 보건부문의 의료일군, 과학자, 기술자, 교원, 박사원생들이 참가한 토론회는 내과학, 외과학, 고려의학, 위생방역학, 기초의학, 약학분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 《인민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발표 40돐기념 전국 의학과 학도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 《인민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발표 40돐기념 전국 의학과 학도론회가 4월 29일과 30일 평양에서 있었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로작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이룩된 연구성과들을 반영한 400여건의 의학과학문들이 발표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 63(1974)년 4월 9일 력사적로작을 발표하시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독창적인 보건사상을 구현하여 인민보건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는데서 나서서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나라의 의과학기술 발전과 인민들에 대한 예방치료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보건실천에서 로작의 생활력이 뚜렷이 파시되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최근년간 실험 및 임상적연구를 통하여 해결한 여러 질병들에 대한 진단, 치료성

과들과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예방치료사업을 현대화, 과학화하고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더욱 완성하는데서 이룩된 경험들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교원들이 남해영, 한광현, 박사원생 박희명, 김만유병원 의사 최건일, 의과학원 의과기연구소 연구사 표해영, 보건성 중앙위생방역소 의사 백은영을 비롯한 27명이 발표한 논문들이 실천적의의가 큰것으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토론회참가자들은 실제위인들의 보건사상과 업적을 깊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을 받들어 의료봉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휘해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이 당과 수령의 은덕에 보답하는 길이며 우리의 사회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농업생산에 자각적으로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더없이 귀중한 인재의 대부대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가 성과적으로 발사된 뜻깊은 날이었다.

이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번에 발사한 다계단운반로켓과 인공지구위성은 100%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로 개발한것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30대, 40대의 젊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개발하였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젊은 세 세대 인재를 가지고 있는 남다른 궁지가 우리 장군님의 말씀에 한껏 넘쳐흘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우리 청년들은 인공지구위성과 같은 최첨단기술을 연구하는 초소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선군조선의 존엄과 막강한 국력을 온 세상에 파시한 미더운 청년과학자, 기술자들이 대거 대견

자신께서 우리 식의 내화학생산공정을 보여주는 직판도에 직접 경의를 표시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동계급에게 드린 경의, 정령 그것은 강성국가건설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우리 로동계급에 대한 최대의 평가였고 크나큰 믿음의 표시였다.

농업부문에 밝혀주신 고귀한 지침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야 인민들의 살림살이가 흥성거리고 사회주의건설에 앞장서는 위훈을 올릴수 있다고 하시면서 농민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농사를 잘 짓는것

하도록 하시였다.

광산의 일군들은 받아안은 영광이 품만 같아 세한 흥분에 힘써였다.

바로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자리에 로동계급이 없어 그러는데 그들에게 경의를 표시하는 의미에서

농업부문에 밝혀주신 고귀한 지침

주체 86(1997)년 1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전당당일군회의의 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시였다.

서한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농업문제에 대해서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경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를 푸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늘 농사는 천하지대본이고 쌀은 곧 사회주의라고 하시였는데 우리는 수령님의 이 교시의 정당성을 최근 몇해이간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네델란드왕국 국왕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압스테르담

네델란드왕국 국왕 윌렘-알렉산데르 폐하

나는 네델란드왕국 국왕께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축하를 보내면서 귀국의 발전과 번영을衷心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3(2014)년 4월 30일 평양

창조적 노동과 혁신적 위훈으로 빛나는 보람찬 삶

5월의 하늘가에 울려 퍼지는 승리의 노래

이 땅에 노래가 울려 퍼진다. 신군의 대지 위에 기적과 혁신, 궁지와 보람으로 누출이던 근로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떨치며 《승리의 5월》, 창조와 단결의 노래가 끊이지 매아리쳐간다.

창조하고 우리는 힘찬 근로자 새 세기를 창조하는 승리의 주인 ...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5월이 또 해마다 경축하는 전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이지만 뜻깊은 올해의 5.1절을 맞는 우리 근로자들의 추억과 맹세는 더욱 뜨겁고 영웅적기상과 창조적열정을 하늘에 닿고있다. 우리의 눈앞에 잊지 못할 화폭이 숨쉬며 떠오른다.

지난해 5월 1일 보건의료 근로자들의 체육경기를 몸소 보아주시는 자리에서 전세계 근로자들의 명절을 뜻깊게 맞이한 전세계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온 나라의 일터와 가정마다에 크나큰 감격과 기쁨, 격정과 환희가 세차게 끓어올랐다. 나라일인 그대들 바쁘신 가운데서도 평범한 근로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그들과 허물없이 명절을 함께 쇠시는 한없이 자애롭고 인자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우리 인민은 심장으로 다시금 절감하였다.

대대로 우리는 수평봉, 장군복 속에 근로대중의 값있는 삶과 참다운 행복이 있다는 것을, 하기에 5.1절을 맞이한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뜨겁게 넘

쳐나는것은 오직 하나 우리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아들여가는 결사관철의 투사들로 내세워주시고 인생의 영광과 삶의 보람을 마음껏 누리도록 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 불타는 보람의 맹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해방직후 수령님의 애국의 호소를 받들고 새 민주주의를 일떠세운 세대들처럼, 전후 재대로 된 빈터 위에 맨손으로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운 천리마시대의 영웅들처럼 선군시대의 참다운 애국자가 되어 사회주의강성국가국을 도모하여 일떠세워야 합니다.》

인류역사는 창조와 로동의 역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간에게 그로록 신성한 로동이 어느 사회에서나 다 기쁨과 보람, 행복과 영예로 되는것은 아니다. 창조와 로동의 주인공인 근로자들이 온의 노예, 자본의 도구로 전락하여 온갖 무런리와 예속됨에 신음하는 현대자본주의 사회의 진면모가 그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그와는 반대로 로동이 그대로 노예로, 행복으로 되고있는 이 땅에서는 얼마나 가슴벅찬 현실이 펼쳐지고있는것인가. 선군조선의 변혁기를 열어나가는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에 맞이하는 우리의 5.1절! 창조의 동음으로 들끓는 공장과 협동전야, 탐구의 열정 나래

치는 과학연구기지를 비롯하여 경제강국건설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내 조국땅 그 어디서나 뜻깊은 5.1절을 맞으며 투쟁과 열정의 노래소리, 기쁨과 광만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울려 퍼지고있다.

돌이켜보면 조국청사에 아로 새겨진 창조와 변혁의 긍지높은 역사는 이 땅에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해주시고 근로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 인 삶을 꽃피워주시는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와 자애로운 손길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근로하는 인민이 있는 곳이라면 석수놓이지는 막장과 눈비내리는 포진같이 마다하지 않으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평범한 근로자들의 기쁨은 손과 땀을 손은 허물없이 잡아주시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헌신하고있는 그들의 수고를 값있게 헤아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정녕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야말로 이 땅에서 기적과 혁신의 자랑찬 역사, 선군조선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온 원천이며 강성국가건설의 힘있는 원동력인것이다.

나라 방방곡곡에서 경제강국건설의 총공격전지 세차게 벌여지는 격동적인 시기 5.1절

을 맞이한 선군시대 근로자들의 심장은 지금 위대한 대원수님을 그대로이신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경지와 자부심을 안고 창조적 노래, 기적과 혁신의 노래들이 마치고 나고 빛으로 애국위업수행에 헌신해갈 불타는 맹세로 고동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그의 두리에 철혈같이 굳은 근로인민대중의 불굴의 정신력, 무한한 창조적의 힘과 열정이 넘쳐나고 이 땅에서는 사회주의의 찬란한 현실이 눈부시게 펼쳐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 남 호

애국의 열정 넘치는 협동농장

룡강군 룡호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의 농업혁명명령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 위업성을 높이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습니다.》

전세계 근로자들의 명절인 5.1절을 자랑찬 로적위훈속에 맞이하는 온 나라 근로자들과 룡강군 룡호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

본밭이 절여가는 포진마다에서 신심과 락관에 넘쳐 불철영농 전투를 벌여나가는 이들의 열광마디에는 기쁨이 가득 어리었다. 포진방송기에서 울려나오는 《땅과 농민》의 노래소리와 더불어 포진마다에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려는 농장원들의 열정에 넘친 모습 또한 자랑스럽다.

본밭에 씨앗을 물은것만큼 여름에 따를것만큼 가을이면 이 땅은 열매를 주며 땅이여 너는 향심의 저울 땅이여 너는 애국의 저울 ...

강녕이영양단지모용저심기

과학기술로 우리 당을 받들어갈 일념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흠모하고 받들며 당의 구상을 꽃피우고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흠모하고 받들며 당의 구상을 꽃피우고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흠모하고 받들며 당의 구상을 꽃피우고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흠모하고 받들며 당의 구상을 꽃피우고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흠모하고 받들며 당의 구상을 꽃피우고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흠모하고 받들며 당의 구상을 꽃피우고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강철로 사회주의 내 조국을 받들어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다.

강철로 사회주의 내 조국을 받들어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강철로 사회주의 내 조국을 받들어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강철로 사회주의 내 조국을 받들어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강철로 사회주의 내 조국을 받들어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강철로 사회주의 내 조국을 받들어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강철로 사회주의 내 조국을 받들어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강철로 사회주의 내 조국을 받들어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강철로 사회주의 내 조국을 받들어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강철로 사회주의 내 조국을 받들어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강철로 사회주의 내 조국을 받들어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강철로 사회주의 내 조국을 받들어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강철로 사회주의 내 조국을 받들어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영웅광부의 위훈은 쇠돌산의 높이에

은를 광산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본조선청년동맹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폐막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4월 1일에 개막되었던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되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4월 1일에 개막되었던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되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4월 1일에 개막되었던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되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4월 1일에 개막되었던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되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4월 1일에 개막되었던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되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4월 1일에 개막되었던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되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4월 1일에 개막되었던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되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4월 1일에 개막되었던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되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4월 1일에 개막되었던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되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4월 1일에 개막되었던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되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4월 1일에 개막되었던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되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4월 1일에 개막되었던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되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4월 1일에 개막되었던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되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4월 1일에 개막되었던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되었다.

수재교육 성과 전시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제1중학교를 현지지도하신 30돐을 맞으며 수재교육 성과 전시회 및 경험 발표회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제1중학교를 현지지도하신 30돐을 맞으며 수재교육 성과 전시회 및 경험 발표회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제1중학교를 현지지도하신 30돐을 맞으며 수재교육 성과 전시회 및 경험 발표회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제1중학교를 현지지도하신 30돐을 맞으며 수재교육 성과 전시회 및 경험 발표회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제1중학교를 현지지도하신 30돐을 맞으며 수재교육 성과 전시회 및 경험 발표회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제1중학교를 현지지도하신 30돐을 맞으며 수재교육 성과 전시회 및 경험 발표회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제1중학교를 현지지도하신 30돐을 맞으며 수재교육 성과 전시회 및 경험 발표회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제1중학교를 현지지도하신 30돐을 맞으며 수재교육 성과 전시회 및 경험 발표회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제1중학교를 현지지도하신 30돐을 맞으며 수재교육 성과 전시회 및 경험 발표회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제1중학교를 현지지도하신 30돐을 맞으며 수재교육 성과 전시회 및 경험 발표회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제1중학교를 현지지도하신 30돐을 맞으며 수재교육 성과 전시회 및 경험 발표회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제1중학교를 현지지도하신 30돐을 맞으며 수재교육 성과 전시회 및 경험 발표회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제1중학교를 현지지도하신 30돐을 맞으며 수재교육 성과 전시회 및 경험 발표회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제1중학교를 현지지도하신 30돐을 맞으며 수재교육 성과 전시회 및 경험 발표회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세계활쏘기련맹 위원장이 떠나갔다

우그르 에르데너 세계활쏘기련맹 위원장이 4월 30일 평양을 떠나갔다.

중국 국가관광국친선참관단 귀국

비행장에서 조성철 국가관광총국 부총장이 전송하였다.

초소와 잇닿은 마음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사들을 위하는 인민의 뜨거운 마음과 마음들이 조국방선초소로 끊이지 달려가고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사들을 위하는 인민의 뜨거운 마음과 마음들이 조국방선초소로 끊이지 달려가고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사들을 위하는 인민의 뜨거운 마음과 마음들이 조국방선초소로 끊이지 달려가고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사들을 위하는 인민의 뜨거운 마음과 마음들이 조국방선초소로 끊이지 달려가고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사들을 위하는 인민의 뜨거운 마음과 마음들이 조국방선초소로 끊이지 달려가고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사들을 위하는 인민의 뜨거운 마음과 마음들이 조국방선초소로 끊이지 달려가고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사들을 위하는 인민의 뜨거운 마음과 마음들이 조국방선초소로 끊이지 달려가고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사들을 위하는 인민의 뜨거운 마음과 마음들이 조국방선초소로 끊이지 달려가고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사들을 위하는 인민의 뜨거운 마음과 마음들이 조국방선초소로 끊이지 달려가고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사들을 위하는 인민의 뜨거운 마음과 마음들이 조국방선초소로 끊이지 달려가고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사들을 위하는 인민의 뜨거운 마음과 마음들이 조국방선초소로 끊이지 달려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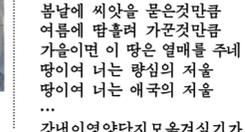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사들을 위하는 인민의 뜨거운 마음과 마음들이 조국방선초소로 끊이지 달려가고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사들을 위하는 인민의 뜨거운 마음과 마음들이 조국방선초소로 끊이지 달려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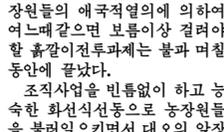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사들을 위하는 인민의 뜨거운 마음과 마음들이 조국방선초소로 끊이지 달려가고있다.



강철로 사회주의 내 조국을 받들어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다. 본사기자 찍음



본밭에 씨앗을 물은것만큼 여름에 따를것만큼 가을이면 이 땅은 열매를 주며 땅이여 너는 향심의 저울 땅이여 너는 애국의 저울 ...



본사기자 홍 성 철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국 주재 대북총리대사 임명

유리 프루덴코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국 주재 대북총리대사 임명

재일본조선청년동맹대표단 도착

재일본조선청년동맹대표단 도착

비행장에서 로트월대각부총리, 공석용 외무성 부상, 임원일 로씨야연방 나호트카주재 우리 나라 총영사, 관제부총리, 알렉산드르 제코비 주조 로씨야 연방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전송하였다.

비행장에서 로트월대각부총리, 공석용 외무성 부상, 임원일 로씨야연방 나호트카주재 우리 나라 총영사, 관제부총리, 알렉산드르 제코비 주조 로씨야 연방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전송하였다.

세계활쏘기련맹 위원장이 떠나갔다

우그르 에르데너 세계활쏘기련맹 위원장이 4월 30일 평양을 떠나갔다.

중국 국가관광국친선참관단 귀국

비행장에서 조성철 국가관광총국 부총장이 전송하였다.

초소와 잇닿은 마음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사들을 위하는 인민의 뜨거운 마음과 마음들이 조국방선초소로 끊이지 달려가고있다.

영웅광부의 위훈은 쇠돌산의 높이에

은를 광산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본조선청년동맹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본사기자 신 종 혁

반공화국대결책동의 대가를 천백배로 치르게 될 것이다

도발자에게 차례질것은 비참한 파멸 가련한 주구의 맥빠진 푸념질

신성한 인권을 모독하지 말라

박근혜가 우리 공화국에 대해 《최악의 인권침해》, 《책인》이니 하고 개소리할 한것은 그야말로 제 낯짝 더러운줄 모르고 거울만 나무란다 속담 그대로이다.

사상 최악의 반인민적폭정으로 수많은 불행한 사람들을 자살의 길로 내모는 살인마가 누굴 생각해준다고 형질수설인가. 삶은 소대끼가 다 폭소를 터칠노릇이다.

얼마전 남조선에서 세 모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피피당국을 저주하며 한겨레에 자살하고 30대의 여인이 어린 딸과 함께 투신자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나는 그날밤 잠을 다 잘수 없었다. 너성들의 절대다수가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으로 혼자 다니기를 꺼려하고 몸서리치는 살인사건들이 꼬리를 몰고 일어나는 암흑세상, 인권의 무덤에서 누구에게 손가락질인가.

지금 려객선침몰사고로 도처에서 유가족들의 통곡소리가 울려나오는데 그에는 귀를 틀어막고 음침

한 방주석에 틀고앉아 상진과 이마를 맞대고 동족암살을 노린 음모를 꾸미는것이 그대 박근혜가 떠드는 인권인가.

한창 청소년에 대한 꿈을 펼칠 남조선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의 폭력행위에 견딜수 없어 아바트에서 몸을 던져 자살하고 1주일동안만 해도 3명의 학생들만 죽어 가니 무슨 자살한 사실을 그대 박근혜는 모른다 말인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훌륭한 인간중심의 사회, 인민들의 꿈과 이상이 빛나는 현실로 활짝 꽃피고있는 우리 공화국을 피피당국이 아무리 어찌보려고 달려들어 소용이 없다.

박근혜는 신성한 인권을 그 악취한 짓으로 흔들어 모독하지 말아야 한다. 인권유린왕조의 그 괴물처럼 너두리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고 상진앞에서 온갖 역겨운 추태를 다 부렸더니 이런 패륜패덕한, 대결미치광이는 보다 처음이다. 동족의 식을 제쳐놓고 초보적인 인문덕도 모르는 추돌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그 추제에 박근혜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과 가장 정당한 병진로선에 대해 시비질을 하며 《실례》니 뭐니 하고 외세로 깎아내리는 짓이 아닌가 하고 외세로 깎아내리는 짓이 아닌가 하고 머리속에 든것만이라도 아무것도 없이 무시하기 이를대 필경은 남이 써준것을 수습에 적어가지고 앵무새처럼 졸출 외우는 년이라

니 달리 처신할수 있겠는가.

피피당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네놈들이 미국과 야합하여 아무리 반공화국핵소동에 미쳐달려도 위대한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들고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이룩하고야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성의 신념과 의지는 절대로 허물수 없다. 외세와 적자공미를 하며 우리 조국과 체제를 함부로 건드린 박근혜당국은 그 치명리는 최악의 대가를 천백배로 치르게 될것이다.

육류이동병원 과장 조인수

요즘 피피의교부 장관 윤병세가 핵문제를 걸고 도발적담담을 펼친 놀이놀고있다.

얼마전 이자는 아산정책연구원이 개최한 회의에서 그누구의 《핵야욕》이니, 국제사회가 《더는 허용하지 않을것》이라는 하는 말만을 제치면서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늦기 전에 돌아서라고 주제넘게 우리를 희유하였다. 이어 《국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 나타나서는 《4차역시 협업중성》파위를 운운하면서 핵시험을 강행하면 국제사회의 핵이 《아름답게 없는 조치》를 취할것이라는 가소로운 수작을 내뱉었다.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과 대결야망에 사로잡혀 대세에 대한 관념능력마저 상실한자의 얼빠진 너두리는 사실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다.

미국의 반공화국핵소동의 너절한 하수인에 불과한 윤병세가 어찌저저찌구 한다고 하여 우리의 정의의 위엄이 훼손되는것도 아니며 우리가 갈길을 주지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적대세력의 침략적도전에 대처하여 조국과 민족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위업을 《핵야욕》이니, 《잘못된 길》이니, 《협업중성》이니 하고 마구 헐뜯으면서 사태를 고의적으로 최악의 과격으로 몰아가는 피피당국의 위험천만한 망동에 대해서는 절대로 스쳐지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핵문제로 우리를 걸고들 체면이 없다. 우리를 자위적국방력강화로 떠미는 장본인이 과연 누구인가.

달려진바와 같이 피피들은 얼마전 미국과 함께 각종 핵타격수단들을 투입하여 《독주》합동군사연습을 발판적으로 벌리면서 남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를 조성하고있다. 그러한 속에 《쌍용》이니, 《맥스 쉐더》니 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도발적불장난들을 2중, 3중으로 감행하며 핵전쟁발발의 위기를 극도로 고조시킨것도 바로 미국과 피피들이다. 침략자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그렇게 피를 흘리고 달려드는 우리가 그것을 팔짱고 나앉아 구경만 하리라고 생각하는가.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 자위적위력을 취할 당연한 권리가 있다. 그것을 감히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남장조들을 우리는 추

호도 용서치 않을것이다.

윤병세가 《정권의 외교부 장관평거지를 쓰고 나선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에게 대해 베풀어진 소리만 들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팔팔마라 북의 《핵포기》와 《변화》를 영무세처럼 외우면서 우리의 병진로선을 약탈하게 시비중성화한것도 이치이며 국제적인 반공화국핵소동의 맨 앞장에서 동족대결에 피는이 되어 돌아온것도 다름아닌 억도이다.

조선반도정국을 주도코 침에해진 지금 윤병세의 반공화국암살공심은 더욱 뚜렷이 드러나고있다.

이자는 미국대통령의 남조선행각을 앞두고 《북의 4차역시협약가능성》을 요란히 떠들어대며으로써 행각의 초점을 핵문제로 돌리고 상진에게 반공화국대결공조를 적극 구걸할 기도를 드러냈다. 그가 국제사회가 《더는 허용하지 않을것》이라는 《아름답게 없는 조치》라고 형질수설한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미국은 남조선피피들이 아직도 국제적인 제재와 압력이 우리를 물러설수 있게 하리라고 타산하는것이다. 윤병세를 비롯한 피피당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의 신념은 천만군민의 철성의 신념이며 불변의 의지이다. 우리는 스스로가 택한 선군의 길에서 한치의 달라도,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역세로 나아갈것이다.

윤병세는 외세추종에 환장한 나머지 어느 길이 존엄에 살고 궁지에 몇몇한 길인가도 아직 모르고있다.

이런 일꾼이가 외교문제를 주관하고있으니 남조선이 사대와 압력의 치욕을 들뜨는것은 당연한것이다.

윤병세역도 《북핵포기》를 매일같이 떠들며 외세의 반공화국대결공조에 갈수록 분주함을 피우는것은 피피들이 우리의 자위적신념과 초강경토치에 당황장조하여 갈망정당하면서 어쩔줄 몰라하고있다는것을 반증해준다.

억도가 아무리 핵문제를 걸고들며 피대를 세워우리는 그것을 외세의 가련한 주구의 맥빠진 푸념질로밖에 여기지 않는다.

피피들의 그 어떤 발악도 우리의 존엄과 위엄에 흠집을 낼수 없으며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위한 천군민의 단호한 결심을 물러세울수 없다.

최 철 순

천하의 패륜패덕한, 대결미치광이

얼마전 유럽의 여거지기를 돌아치며 입에 게거품을 물고 우리에게 대한 참을수 없는 악담들을 제친 박근혜가 이번에는 제 소대로 미국대통령 오바마를 끌어들이며 또다시 통령 망발을 오물처럼 쏟아냈다고 한다.

동족에 대한 적대감이 아무리 몰수에 짝 들어차도 그렇기 어떻게든 남조선땅이 거대한 초상점으로 화한

판에 대양전선의 양키놈들을 청해들어 피로써 지으며 히벌컬러고 아양을 떨수 있는가.

그대 박근혜에게는 아이들을 당장 끌려내라는 어머니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인민들은 무리로 죽어가고 상판없고 미국에 반공화국암살만 찬양하면 된다고 하면서 잔치판을 벌리

고 상진앞에서 온갖 역겨운 추태를 다 부렸더니 이런 패륜패덕한, 대결미치광이는 보다 처음이다. 동족의 식을 제쳐놓고 초보적인 인문덕도 모르는 추돌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그 추제에 박근혜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과 가장 정당한 병진로선에 대해 시비질을 하며 《실례》니 뭐니 하고 외세로 깎아내리는 짓이 아닌가 하고 외세로 깎아내리는 짓이 아닌가 하고 머리속에 든것만이라도 아무것도 없이 무시하기 이를대 필경은 남이 써준것을 수습에 적어가지고 앵무새처럼 졸출 외우는 년이라

이 극악한 핵억제력을 모조리 즉각타격하고 썩어내버려야 한다. 박근혜가 아무리 악담질을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높고 병든 암고양이의 가발론 신승리소리에 불과하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억척같이 자리잡은 마음의 기둥, 신념의 기둥을 허물어보려는것이야말로 맨발로 바위치는 격의 우둔한짓이다. 피피들이 대결소동에 광분하던 할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와 복수심은 배배, 천배로 역세어질것이다.

망과 수평의 두리에 억척같이 공치로 조국수호의 성스러운 결연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할 각오로 총탄만 천대의 총폭탄에도 조국통일대전의 명령만을 기다리고있다. 박근혜는 헛된 망상에 술한 미제침략군들을 끌고 미러감치 청와대를 떠나는데 나 올것이다.

평양건축종합대학 강좌장 권철환

미국대통령 오바마의 이번 남조선행각과 상진앞에 온갖 야양을 다 부렸더니 이런 패륜패덕한, 대결미치광이는 보다 처음이다. 동족의 식을 제쳐놓고 초보적인 인문덕도 모르는 추돌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그 추제에 박근혜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과 가장 정당한 병진로선에 대해 시비질을 하며 《실례》니 뭐니 하고 외세로 깎아내리는 짓이 아닌가 하고 외세로 깎아내리는 짓이 아닌가 하고 머리속에 든것만이라도 아무것도 없이 무시하기 이를대 필경은 남이 써준것을 수습에 적어가지고 앵무새처럼 졸출 외우는 년이라

미국대통령 오바마의 이번 남조선행각과 상진앞에 온갖 야양을 다 부렸더니 이런 패륜패덕한, 대결미치광이는 보다 처음이다. 동족의 식을 제쳐놓고 초보적인 인문덕도 모르는 추돌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그 추제에 박근혜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과 가장 정당한 병진로선에 대해 시비질을 하며 《실례》니 뭐니 하고 외세로 깎아내리는 짓이 아닌가 하고 외세로 깎아내리는 짓이 아닌가 하고 머리속에 든것만이라도 아무것도 없이 무시하기 이를대 필경은 남이 써준것을 수습에 적어가지고 앵무새처럼 졸출 외우는 년이라

반역의 무리들은 더 큰 화난을 불러 오기 전에 하루빨리 쓸어버려야 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피피청와대가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침략군이 약탈해간 국새를 비롯한 조선봉건왕조시기 문화재를 놓고 《북탈탈》설을 내세우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4월 30일 이틀을 규한하는 보도 제1060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얼마전 서울을 행각한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남조선인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못이겨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침략군이 약탈해간 국새를 비롯한 9점의 조선봉건왕조시기 문화재를 반환하는 높음을 벌리었다.

《문화재로 말하면 미해방대장교가 서울 덕수궁에서 로략질하여 제 양말쪽에 감추어 미국에 가져간것이다.

그런데 얼트당도않게 피피청와대가 나서서 이번엔 오바마가 반환하는 문화재가 전쟁때 《북이 약탈해간것》이라고 우리를 터무니없이 접근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범죄적행위를 가리우고 동족을 모욕하기 위한 비열한 모략으로서 우리에게 대한 또 하나의 약탈한 도발이다. 미국이 역사적으로 우리 나라

에 침략의 첫발을 들여놓은 때로부터 수많은 귀중한 역사문화재들을 약탈해간다는것은 세상이 아는 사실이다.

1868년의 남원군도교사건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시기에도 우리 강토를 무참히 파괴하고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면서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들을 타치는데로 강탈해갔다.

이번엔 오바마가 반환하기 위해 해 들고는 문화재도 그가운데 국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그대에서는 이번 문화재를 약탈해가지고가서 60여년동안이나 집에 감추어두었던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미해방대 장교의 후손이 실도했고 미국 판계기관에서도 불법취득한것이라는것을 확인하였다.

오바마 역시 경부공참관시 취재진앞에서 자기가 반환하는 문화재는 《조선전쟁의 혼란속에서 미국에 불법적으로 온것》이라고 공식 인정하였다.

모략적정세가 드러나 바빠맞은 청와대는 그 무슨 《판세기록》내용에 북이 《약탈》한것으로 되어있다고 변명하였다가 그나

마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것이 폭로되어 세계면전에서 깨개 망신하였다.

미국의 최고우두머리까지 약탈해간 문화재라는것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청와대만이 《북탈탈》설을 내세우고 있는것은 박근혜당국이 얼마나 추악한 사대매국노이고 동족대결판기가 하는것을 보여준다.

이번엔 오바마는 제놈들이 약탈해간 문화재를 반환하면서 도마치 신심이나 쓰듯이 첩언파에 게 높아졌는가 하면 박근혜는 웅당 찾아야 할것을 찾으면서도 바르만 한미디 허기는 고사하고 둘러쌓아 감추어두고 하면서 감지덕지해하였는데 참으로 꼴불견이었다.

그것이야말로 강도가 훔친것의 일부를 돌려주었다고 하여 허리를 굽혀 절하는 격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는것이다.

박근혜와 그대당의 말발과 추들대로 썩든 너절한 치사한 식민지사관군, 미국의 노복의 꼴골을 적러라하게 보여주고있다.

이 세상에 박근혜당과 같은 쓸개빠진 민족반역무리, 추악한

패륜집단은 없다.

박근혜는 이번엔 남 조선의 려객선침몰사고로 이미규환의 초상점이 된 가운데 그에는 이렇듯없이 미국상선을 끌어들이는 인민들의 원성을 신대마사 상진앞에서 벌의별 노래를 다 부리며 역격계 돌아내어 각계층으로부터 《오바마의 너서기》, 《선생앞에 선 너학생》, 《상죄죄를 못 보겠다.》는 비난가지를 받았다.

이번 몰살 사대매국화남년을 처여 그냥 놓수 있겠는가. 너러한 학생들을 비롯한 수백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이가고도 변변한 사죄도 없이 책임을 아배에 밀어버리고 자기는 외세와 입맞추며 돌아가는 《유신》독재자의 딸 박근혜에 대해 남조선인민들이 《살인마》로 저주하고 《하야》호를 높이 든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반역의 무리들은 더 큰 화난을 불러오기 전에 하루빨리 쓸어버려야 한다.

박근혜는 자기가 저지른 만고죄악으로 하여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남조선 인터넷신문들에 실린 풍자사진, 풍자만화들(1)

벌서는 학생, 결재받는 주구

미국대통령 오바마의 이번 남조선행각과 상진앞에 온갖 야양을 다 부렸더니 이런 패륜패덕한, 대결미치광이는 보다 처음이다. 동족의 식을 제쳐놓고 초보적인 인문덕도 모르는 추돌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그 추제에 박근혜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과 가장 정당한 병진로선에 대해 시비질을 하며 《실례》니 뭐니 하고 외세로 깎아내리는 짓이 아닌가 하고 외세로 깎아내리는 짓이 아닌가 하고 머리속에 든것만이라도 아무것도 없이 무시하기 이를대 필경은 남이 써준것을 수습에 적어가지고 앵무새처럼 졸출 외우는 년이라

미국대통령 오바마의 이번 남조선행각과 상진앞에 온갖 야양을 다 부렸더니 이런 패륜패덕한, 대결미치광이는 보다 처음이다. 동족의 식을 제쳐놓고 초보적인 인문덕도 모르는 추돌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그 추제에 박근혜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과 가장 정당한 병진로선에 대해 시비질을 하며 《실례》니 뭐니 하고 외세로 깎아내리는 짓이 아닌가 하고 외세로 깎아내리는 짓이 아닌가 하고 머리속에 든것만이라도 아무것도 없이 무시하기 이를대 필경은 남이 써준것을 수습에 적어가지고 앵무새처럼 졸출 외우는 년이라

미국대통령 오바마의 이번 남조선행각과 상진앞에 온갖 야양을 다 부렸더니 이런 패륜패덕한, 대결미치광이는 보다 처음이다. 동족의 식을 제쳐놓고 초보적인 인문덕도 모르는 추돌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그 추제에 박근혜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과 가장 정당한 병진로선에 대해 시비질을 하며 《실례》니 뭐니 하고 외세로 깎아내리는 짓이 아닌가 하고 외세로 깎아내리는 짓이 아닌가 하고 머리속에 든것만이라도 아무것도 없이 무시하기 이를대 필경은 남이 써준것을 수습에 적어가지고 앵무새처럼 졸출 외우는 년이라

미국대통령 오바마의 이번 남조선행각과 상진앞에 온갖 야양을 다 부렸더니 이런 패륜패덕한, 대결미치광이는 보다 처음이다. 동족의 식을 제쳐놓고 초보적인 인문덕도 모르는 추돌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그 추제에 박근혜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과 가장 정당한 병진로선에 대해 시비질을 하며 《실례》니 뭐니 하고 외세로 깎아내리는 짓이 아닌가 하고 외세로 깎아내리는 짓이 아닌가 하고 머리속에 든것만이라도 아무것도 없이 무시하기 이를대 필경은 남이 써준것을 수습에 적어가지고 앵무새처럼 졸출 외우는 년이라

파멸을 재촉하는 대미추종행위

동북아시아의 곳곳에서 미국의 주도하에 미사일방위체계수립이 강행추진되고있다. 얼마전에도 미일은 제 107년까지 이즈시그 2척을 일본에 추가배비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방위성 부국장은 북조선의 미사일발사동향을 24시간 수직하여 요격할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떠들어댔다. 일본인들은 이 누가 당장이라도 일본령토를 불바다로 만들듯이 제나라의 왕창같은 억측을 하며 우리의 《미사일위협》을 떠드는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반디불을 보고 도깨비불이라고 소동을 피우는것은 철없는 아이들이나 할수 있는 일이다.

한때 세계가 《미사일알레르기》로 조소한 일본의 광란적인 《미사일공포증》에 대해 사람들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최근년간 일본이 빈번히 떠들어대는 《북조선미사일위협》설은 최잡은자의 피해망상증의 발로이다.

미사일위협은 다름아닌 일본으로부터 오고있다. 미사일무력은 일본인민들이 특별히 중시하는 핵심사항이다. 군사대국화를 국시로 내세운 일본이 긴 사정거리를 가진 각종 미사일들을 개발한지는 이미 오래다.

1980년대부터는 미사일의 국산화가 시작되었다. 영국신문 《윈데이 타임스》(일본은 10가지 형의 미사일을 가지고있는데 거기에 모두 핵탄두를 장착할수 있다.》고 폭로하였다.

대우기 쓰르보발수 없는것은 일본이 우리의 인공지위성발사를 터무니없이 《미사일발사》로 접근고들며 그것을 구실로 미국과 야합하여 미사일방위체계수립행동을 발판적으로 강행하고있는것이다. 미사일방위체계의 공동개발과 생산, 배비를 허용하는 범죄적인 조치를 취한 일본에서는 미사일방위체계도입이 본격적으로 강행되고있다.

지난 10년간 미사일방위체계구축에 쏟아부은 자금은 100억USS에 달한다. 해상과 지상

에 요격미사일체계를 전개한 일본은 대미추종행위를 행하는 란도미사일을 해상요격미사일로 요격하고 만일 그것이 실패하는 경우 지상발사용 미사일로 요격한다는 이중미사일요격체계를 수립하였다.

일본추종자들은 명명체제로 간소화하였다. 이미 수상의 승인하에서 가능하였던 요격명명체계를 방위상의 자체판단에 의한 명명체제로 바꾸었다.

일반적으로 무기체제는 사용목적에 따라 그 성격과 사명이 달라진다. 《전수방위》를 선제타격으로 군사전략을 수정한 일본인민들이 미사일방위체계개발과 배비에 이 그 무슨 《요격》의 외위를 의운다고 해서 그것을 끝이들을 사람이 없으며 또 그 침략적성격이 가리워지는것도 아니다.

사실상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임의의 순간에 다른 나라들을 선제타격할수 있는 제반 준비를 갖추어놓았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은 이제는 무력행사의 포성을 울릴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있다.

일본인민들이 입을 모아 우리의 《미사일위협》에 대해 합창하는 목적은 명백하다.

저들의 야심적인 미사일방위체계구축을 정당화하고 우리 나라에 대한 군사적침공의 구실을 마련하자는것이다. 당면해서는 미국이 불어대는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발맞춤으로써 무력중장의 구실을 찾고 상진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제침공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알아야 한다. 침략과 전쟁으로 출달을치는 대미추종은 일본에 화환에 가져올것이 없다.

력대로 큰 나라들 등에 업고 남을 걸고들며 제력을 채워온 일본은 더러운 악습으로 운명을 망치기 전에 자중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배 금 회

5. 1절은 미국의 시카고로 동자들의 투쟁에 연원을 두고있다. 1. 28년전 자본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여, 8시간 노동제실시를 요구하여 대우시카고인 시위와 파업을 단행한 시카고노동자들의 투쟁은 미국 사회는 물론 자본주의세계전반을 크게 뒤흔들여놓았다.

이날의 시위는 자본의 노예가 되어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아온 피압박근로대중들의 쌓이고쌓인 울분과 분노의 폭발이었으며 자주적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요구하는 대중적투쟁이었다.

시카고노동자들의 투쟁을 계기로 지구상에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투쟁에 불어넣고 이 한 세기가 훨씬 지났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 근로대중의 념원은 세계적투쟁에서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생존은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로동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있다. 심각한 경제위기로 모든것이 침체되고 아들이기 위해 돈을 아낌없이 부려넣고있는 것은 결코 근로대중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많은 생선들을 대살하면서 높은 생산성을 보장하는 정보기술수단이 독점자본가들에게 보다 많은 고블리움을 획득할수 있는 공간을 지어주기때문이다. 첨단기술을 받아들이며수 인건비가 줄어 들고 보다 많은 독점자본이 생

자주적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짓밟는 자본주의사회

5. 1절은 미국의 시카고로 동자들의 투쟁에 연원을 두고있다. 1. 28년전 자본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여, 8시간 노동제실시를 요구하여 대우시카고인 시위와 파업을 단행한 시카고노동자들의 투쟁은 미국 사회는 물론 자본주의세계전반을 크게 뒤흔들여놓았다.

이날의 시위는 자본의 노예가 되어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아온 피압박근로대중들의 쌓이고쌓인 울분과 분노의 폭발이었으며 자주적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요구하는 대중적투쟁이었다.

시카고노동자들의 투쟁을 계기로 지구상에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투쟁에 불어넣고 이 한 세기가 훨씬 지났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 근로대중의 념원은 세계적투쟁에서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생존은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로동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있다. 심각한 경제위기로 모든것이 침체되고 아들이기 위해 돈을 아낌없이 부려넣고있는 것은 결코 근로대중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많은 생선들을 대살하면서 높은 생산성을 보장하는 정보기술수단이 독점자본가들에게 보다 많은 고블리움을 획득할수 있는 공간을 지어주기때문이다. 첨단기술을 받아들이며수 인건비가 줄어 들고 보다 많은 독점자본이 생

미국대통령 오바마의 이번 남조선행각과 상진앞에 온갖 야양을 다 부렸더니 이런 패륜패덕한, 대결미치광이는 보다 처음이다. 동족의 식을 제쳐놓고 초보적인 인문덕도 모르는 추돌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그 추제에 박근혜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과 가장 정당한 병진로선에 대해 시비질을 하며 《실례》니 뭐니 하고 외세로 깎아내리는 짓이 아닌가 하고 외세로 깎아내리는 짓이 아닌가 하고 머리속에 든것만이라도 아무것도 없이 무시하기 이를대 필경은 남이 써준것을 수습에 적어가지고 앵무새처럼 졸출 외우는 년이라

미국대통령 오바마의 이번 남조선행각과 상진앞에 온갖 야양을 다 부렸더니 이런 패륜패덕한, 대결미치광이는 보다 처음이다. 동족의 식을 제쳐놓고 초보적인 인문덕도 모르는 추돌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그 추제에 박근혜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과 가장 정당한 병진로선에 대해 시비질을 하며 《실례》니 뭐니 하고 외세로 깎아내리는 짓이 아닌가 하고 외세로 깎아내리는 짓이 아닌가 하고 머리속에 든것만이라도 아무것도 없이 무시하기 이를대 필경은 남이 써준것을 수습에 적어가지고 앵무새처럼 졸출 외우는 년이라

미국대통령 오바마의 이번 남조선행각과 상진앞에 온갖 야양을 다 부렸더니 이런 패륜패덕한, 대결미치광이는 보다 처음이다. 동족의 식을 제쳐놓고 초보적인 인문덕도 모르는 추돌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그 추제에 박근혜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과 가장 정당한 병진로선에 대해 시비질을 하며 《실례》니 뭐니 하고 외세로 깎아내리는 짓이 아닌가 하고 외세로 깎아내리는 짓이 아닌가 하고 머리속에 든것만이라도 아무것도 없이 무시하기 이를대 필경은 남이 써준것을 수습에 적어가지고 앵무새처럼 졸출 외우는 년이라

미국대통령 오바마의 이번 남조선행각과 상진앞에 온갖 야양을 다 부렸더니 이런 패륜패덕한, 대결미치광이는 보다 처음이다. 동족의 식을 제쳐놓고 초보적인 인문덕도 모르는 추돌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그 추제에 박근혜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과 가장 정당한 병진로선에 대해 시비질을 하며 《실례》니 뭐니 하고 외세로 깎아내리는 짓이 아닌가 하고 외세로 깎아내리는 짓이 아닌가 하고 머리속에 든것만이라도 아무것도 없이 무시하기 이를대 필경은 남이 써준것을 수습에 적어가지고 앵무새처럼 졸출 외우는 년이라